

서머스쿨, 대장정의 막을 내리다



<사진 1> 라온아띠와 C.M.Azcarate 초등학교 아이들

필리핀 팀 아띠들의 서머스쿨 활동이 끝이 났다. 지난 4월 11일에 등록을 시작해 5월 18일 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바공 포옥(Bagong pook), 시엠아즈카라데(C.M.Azcarate)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각 교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과 마지막 날 두 초등학교가 만나 이루어진 운동회(Sports Fest Day)에 대해 알아보았다. A2~A8에서 계속

여름방학 서머스쿨 마무리 특집!

- 한계를 뛰어 넘어라! A2
-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A3
- 송정원 단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A5
- 시엠아즈카라데, 그곳에서 변화를 발견하다 A6
-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A7

우리 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학교

지난 21일 부터 2주간 "Brigada Eskwela" 라고 하는 학교 환경 미화 및 교실 환경 개선 활동이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학부 모님들과 학생들, 선생님이 함께 모여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를 가꾸는 활동에 아띠들도 참가하여 환경 미화 및 교실 환경 개선에 동참했다.

A10에 계속

**Bagong Pook 초등학교,
페인트칠 합시다!
A10**

아띠들, ALS 활동의 중심에 들어가다

지난 21일, 산파블로 시티 YMCA가 ALS 클래스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커뮤니티인 발록, 산그레고리오, 산루카스에 기부자가 나타나 아띠들도 함께 방문하였다. 아띠들은 이 곳에서 앞으로 ALS 클래스 활동을 하게 될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11에 계속



<사진 2> San Lucas 의 벽화 앞에서의 아띠들 (왼쪽부터 강호, 정원, 의주, 시연, 화영)

SPC YMCA와 친구들

A11

라온아띠 7기 필리핀팀 5월 일정표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May day (공휴일) 4월 보고서 준비 English class	Bağong Pook 4월 보고서 준비 English class	Bağong Pook C.M.Azcarate 4월 보고서 준비 English class	Bağong Pook C.M.Azcarate 4월 보고서 준비 Carlo 생일 English class	4월 보고서 준비
7	8	9	10	11	12
SanPabloCity day (공휴일)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Birthday Party	C.M.Azcarate	San Lucas 방문
14	15	16	17	18	19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Bağong Pook C.M.Azcarate	Sports fest day	휴식
21	22	23	24	25	26
Bağong Pook 환경미화 기부물품 전달	Bağong Pook 환경미화 English class	Bağong Pook 환경미화 English class	Bağong Pook 환경미화 English class	Calibato Lake	중간 보고 준비 350 PPM 준비
28	29	30	31	6월엔 과연 무슨 일들+!?! 뚜둥!	
Jek Leadership Training 졸업	Bağong Pook 환경미화 Canossa College English class	350 PPM 준비 English class	350 PPM 준비 English class		



한계를 뛰어 넘어라!

우리들의 한계를 시험했던 바공포옥 초등학교 유치원반

바공포옥 유치원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알파벳 A-Z까지 익히는 것이었다. 연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반이기에 하루에 알파벳 3~4개라도 제대로 써보자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임했다. 우리는 알파벳과 친근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했다. 수업에서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보겠다.

1. 몸으로 쓰는 알파벳

종이에 연필로 단순히 알파벳만 따라 쓰는 것은 아이들이 쉽게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을 이용해서 마치 춤추는 것처럼 알파벳 쓰는 활동을 했다. 알파벳을 올바른 순서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다.

2. 협동 점선 잇기

커다란 전지에 개미 모양으로 점을 찍어놓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점선 잇기를 시켰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선을 이으면서 알파벳도 익힐뿐더러 다 같이 함께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시킨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회심의 역작이었으나, 당일 참여 인원은 단 2명.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활동이었다.



3. 알파벳 송 부르기

알파벳 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알파벳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둥글게 둥글게, 수건 돌리기,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같은 게임과 알파벳 노래를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노출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 활동 역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노래를 듣기보다는 게임에 신이 나서 계속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활동 목표를 별로 달성하지 못했다.

4. 종이접기

알파벳을 익히는 활동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종이접기 활동을

추가했다. 색색의 종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즐거워했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작업이기에 아이들 두뇌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집중도가 낮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30분 내외라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잘 앉아있지를 못했다. 울기도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먹을 것을 꺼내 먹기도 하고... 타갈로그가 원활하지 않은 우리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A3에 계속

손짓발짓 동원해서 간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계속 칭얼댔다. 나중에는 예라 모르겠다 그냥 먹어라, 그래 가고 싶으면 집에 가라 하고 포기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일까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보호자가 없으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나이의 아이들이라 언니 오빠들이 보호자로 항상 따라왔다. 그런데 이 언니 오빠들도 초등학교 4~6학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 나이 또래이다. 본인들 또한 학생임에도 동생 보호자로 따라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

이 짠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동생들을 도와준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대신 해주는데 이게 오히려 동생들이 배우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았다.

유치원반의 최초목표는 알파벳을 전부 익히는 것이었고, 서머스쿨이 끝난 지금 약 20%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진도는 A부터 Z까지 전부 나갔지만, 아이들 개개인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달라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처음 목표는 아이들에게 흔히 접해보지 못하는 창의적인 수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창의적인

수업을 고안해서 가져가 봐도 아이들은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결국은 가장 단순한 따라쓰기나 색칠하기가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는 활동이었다. 점점 학생 수가 줄어서 비어가는 교실을 볼 때마다 우리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안 오는 건가 반성도 많았다. 그래서 좀 더 재밌는 활동을 해보려고 준비해가면, 아이들은 따라주지 않는 악순환이었다. 우리가 창의적,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기존 목표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시연 단원

<siyeon.kim.kr@gmail.com>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1-3학년 반

1~3학년 반의 목표는 아이들의 정규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 최소한의 예의 익히기, 카테고리 안의 다양한 영어 단어를 익히고 타갈로그어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1주차 : OT, 알파벳

2주차 : 알파벳 노래(발음), 단어 _ 문장구성요소, 달력

3주차 : 단어, 단어의 의미 _ 숫자, 몸, 감정표현

4주차 : 문장 만들기 _ 사진

우리는 아이들이 영어단어를 친숙하게 느끼고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직 타갈로그가 익숙한 아이들에게 달력 읽는 법, 신체부위 익히기, 숫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등을 익히게 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수업은 영어 단어와 타갈로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A4에 계속



반복적 쓰기를 하면서 영어단어를 친숙하게 하고 지루하다 싶으면 단어를 응용하여 말하게 하고 노래와 율동을 배웠다. 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긍정, 부정적인 단어를 익히고 얼굴로 표현하고 그리기를 통해 완전히 학습하게 했다. 배운 단어를 응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 역시 같이 진행하였다. 마지막 시간엔 이제까지 배운 모든 단어를 작은 사전으로 만들어 정리를 하였다.

1~3학년 반은 짧고 쉬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기 싫으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하거나 우리가 못 알아듣는 타갈로그어로 놀릴 때 버릇없이 구는 아이들을 가만히 두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가끔씩 우리 둘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강호 : 마지막 주 갑자기 못 보던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학교에 놀러 왔다. 나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주가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교실로 왔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석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버릇없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내심 제한을 두고 싶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지만 어디까지 모든 것을 열고 받아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면 의주는 끝까지 말로 해야 한다지만 나는 말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의주 : 서머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처럼 강제적인 수업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매일 수업에 찾아와 우리의 수업을 들었으면 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반은 다른 반에 비해 높은 출석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출석률은 들락 날락이었고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맨 처음 등록한 학생이 일주일 정도 왔다가 마지막 날에만 오던가, 중간에 왔던 학생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잘 나오던 학생이 마지막 주에만 안 나오

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제대로 학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꾸준히 오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인 학습법은 그들에게 어려운 수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은 아이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하루 왔으면 내일도 왔으면 하는 마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수업을 들었으면 했다. 더군다나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수업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목표달성 & 느낀 점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면에서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내용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1~3학년의 수준차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상 수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도와가며 동생들을 보살피고 같이 이끌어 나가려는 태도가 그들의 수준 차를 극복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수업 목표는 아이들이 서로 서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다. 다만 꾸준히 오지 않는 아이들과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강호, 신의주 단원
<akang18@naver.com>



송정원 단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4~6학년 반에 대한 자신과의 대담

질문자 (이하 Q) : 한 달 간의 서머스쿨 프로그램이 끝이 났다.

응답자 (이하 A) :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매일 매일 수업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수업 참여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에 개운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간 정이 든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다시 줄어드니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벌써부터 아이들이 보고 싶다.

Q : 4~6학년 반은 언제부터 맡게 되었는가?

A : 처음에는 유치원생~3학년 반에서 김시연, 이화영 단원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우로라에 다녀온 이후 혼자서 4~6학년 반을 맡게 되었다. (Aurora에 가 있는 동안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나뉘어졌다.)

Q : 유치원생~3학년 반을 맡다가 4~6학년 반을 갔다면 수업 스타일에 큰 혼란이 없었나?

A : 처음에는 고학년이기에 말도 잘 통하고 수업하기에 편해 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공놀이를 하는 등 흥미를 붙이기 힘들어 했고 혼자서 진행하는 수업이라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Q :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A : 수업에 게임을 접목시키려 노력했다. 수업 초반에는 단어 외우기가 목표였기 때문에 주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다. 단어 사이사이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힌트를 가지고 단어를 맞추어 나가는 게임이었다.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철자를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행맨 게임을 하기도 했다. 각자 숙제를 통해 알아온 단어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단어를 이용한 빙고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짓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문장을 하나씩 붙여나가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활동도 해보았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자신만의 동화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Q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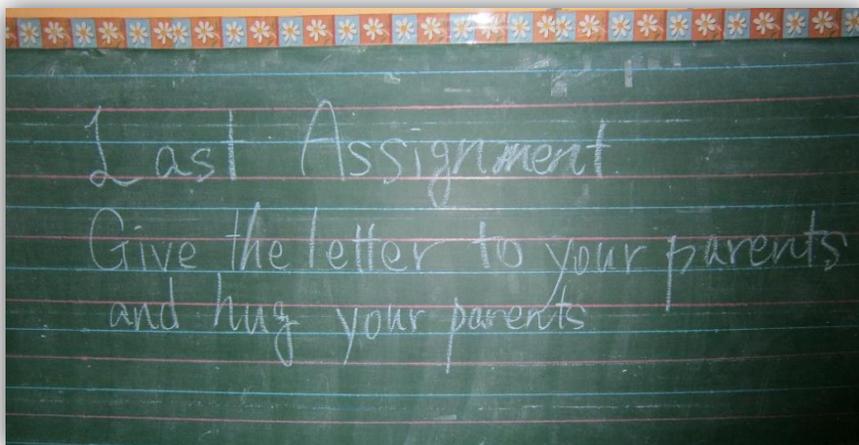
A : 매번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진행할 수 없었다. 친구를 형용사로 표현하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활동 같은 경우 설명하는 중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딴 짓을 하고 있었기에 포기하고 단어 게임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경우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활동이 지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었기에 매우 행복했고, 고마웠다.

Q : 수업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고 그 달성 정도는?

A : 최종 목표인 글짓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새로운 단어 100개 익히기"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품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품사를 구분하는 수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A6에 계속



마지막 2주간은 문장을 만들고 하나의 글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목표인 단어 100개는 안되었지만 5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익히는 활동을 하였으며 글짓기 또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출석 변동이 심하고 흥미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능력 향상을 보기에는 힘들었다.

Q :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A : 아이들의 흥미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지만 점차 줄어가는 학생들의

수에서 그 부분이 마지막까지도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노력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Q :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감사하다.

A : 즐거운 시간이었다.

송정원 단원

<kaizen20@yworld.com>

화장실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

화장실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곳에 들어선 순간 당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케버는 어디에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케버는 없습니다.

여기에 앉으라고? 변기 둘레가 이렇게 얇는데.. 빠지면 어찌지?

아우로라에서 만났던 코이카 단원은 이 위에 올라가서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

허허허.. 그저 웃음만 나오지요.

레버도 없습니다. 가깝씩 휴지통도... 😊

그리고 필리핀의 모든 화장실에는 물통과 바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레버가 없는 대신 바가지로 물을 퍼서 물을 내리는 것이지요.

처음엔 죽어도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화장실도 이제는 털썩 앉고 잘 치루고 나오답니다.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넣을 때마다 깨닫는 물의 소중함은 또 어떻고요.

이젠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곳에서만 ‘혼자’ 일 수 있거든요.

아미들에게 화장실이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닌 편안한 공간 (Comport Room)이 되었습니다.

Written by 의주

C.M.Azcarate 초등학교, 그 곳에서 변화를 발견하다

C.M.Azcarate 초등학교 서머스쿨

‘수업에 집중조차 못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알파벳을 따라 읽게 되었고 미숙했던 우리들도 어느새 훌쩍 커 있었다.’

이 곳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사실 바공포옥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위험한 기차길 옆에 살지도 않거나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았다. 수업의 대상은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수업의 초점은 알파벳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활동

처음 우리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파벳을 알고 쓸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알파벳을 하나 하나 완벽하게 익히게 하다 보니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알파벳 하나 많으면 두 개 정도였고 가르치는 우리도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지루해했다. 특히 연필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알파벳을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보다 빨리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알파벳 수업의 진도를 이전보다 빠르게 나갔다.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에 알파벳을 받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연한 선을 그려주거나 알파벳 안에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알파벳 점선 잇기나 알파벳 송을 이용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모든 알파벳을 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알파벳을 따라 읽고 우리가 주는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낸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한 시간 여의 정규 수업이 끝나면 특별활동(Extra activity)을 진행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협동 스트레칭, 태권도, 율동, 한 그림 그리기 등 예체능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은 여름 학교에 더욱 흥미를 가졌고 이는 아이들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았기에 아이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크레파스를 이용한 그리기 활동이나 색종이를 이용한 접기, 붙이기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평소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1. butterfly 노래를 들으며 나비를 그리고 색종이로 모자이크 하기



2. 한 그림 그리기를 이용한 알파벳 익히기



3. 자외선 차단 팔찌 만들기

A8에 계속

아이들의 변화

우리는 여름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업 초반 낯을 많이 가리고 우리가 다가가기만 해도 울상을 짓던 몇몇 아이의 경우 수업 후반에는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낯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우리를 보면 뒤로 숨기만 하던 우리 옆집 사는 마이코, 제릭이 이제는 우리를 보면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하곤 한다. 또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끼리 어느새 친해져 함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여름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의 언어 능력만을 키우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의 변화

여름학교 초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우리도 수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

어졌다.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편한 마음 가짐으로 수업에 임할 때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러던 중 우리가 휴일 및 일정 때문에 수업을 며칠 간 쉰 적이 있었다. 이후 다시 수업을 재개하려 하니 더 이상 수업에 오는 아이들이 없었다. 학생이 두 명 밖에 없을 때도 있었다.

우리는 옆집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안 일하게 수업 준비를 했다면 이후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공포옥 초등학교와는 달리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의 경우 5명의 라온아띠가 생각을 합쳐 함께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의 교육활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안 오던 아이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도 좀 더 힘을 내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여름학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고 토론을 하고 오리고 붙이던 활동들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좋은 선생님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더욱 확실해진다.

시엠아즈가라데 초등학교에서의 여름학교는 꽤 성공적이었다. 바랑가이 6-D 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 개학 후에도 주말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영 단원

<ehwayoung@nate.com>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여기야 디어차! Sports Fest Day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바공포옥, C.M.A에서 서머스쿨을 마치면서 꾸준히 참석해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자 운동회를 기획하였다. 단순한 운동회보다는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버려지는 것들이나 다시 쓸 수 있는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운동회는 교장선생님 말씀 -> 기부행사 -> 스포츠게임 -> 점심식사 -> 수영

진행되었다.

교장선생님 훈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아이들이든 집중하지 못하는 똑같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말씀 후 한국에서 온 학용품들 서머스쿨 참가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우리는 단지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지만 수증자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에 제대로 참석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가 기부물품을 줄 아이들을 선별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못 받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기부물품을 주는 분명한 기준이 없었고 전적으로 우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이 받고, 못 받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A9에 계속

그 후 우리는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만든 볼링게임, 버려진 박스를 모아 만든 판 뒤집기 게임, 버려진 옷들로 이어 만든 줄다리기 게임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선 박스를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페트병도 동네 분리수거 통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국내 훈련 환경캠페인 역시 쉽게 구해서 준비했었다. 그러나 게임 재료 준비를 하면서 옆집 동생들과 온 마을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정말 힘들게 박스를 구하고 페트병은 단 한 개도 못 구했다.

볼링은 순서를 기다리며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다른 게임 중간에는 경쟁이 과열되어 중지시켜야 할 때도 있었고, 솔직히 협동하는 모습을 상상한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아쉽기도 했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옷이 잘 끊어져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아이들이 재미있어해 다행(?)히 게임을 잘 끝마칠 수 있었다.

점심식사 때는 전날 밤새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주스를 나누어주었다.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샌드위치 속에 잘게 다진 야채를 조금 많이

아이들이 돈을 내고 입장하기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예전에 마미 크리스티가 자유롭게 개방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수영장만 와서 그 후로 조금 철저하게 아이들을 관리하셨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도 역시 수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처음 보는 학생들이 와서 들여보내달라고 졸랐다. 또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서머스쿨 학생들에 대한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것이고, 처음 본 학생들에게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 역시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심지어 다 쓴 페트병은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다. 다행히 YMCA에 다 쓴 페트병과 버려지는 옷들을 모아놔서 준비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 발록에서도 느꼈지만 한국과는 달리 쓰레기가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이 곳에서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운동회 진행상황은 킨더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많은 아이들로 북적이는 상태에서 사실 청팀, 백팀으로 나누고 준비운동 하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개인전인

넣었다. 그런데 맛없다고 몇몇 아이들이 땅에 버린 것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게임과 식사시간에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더 철저하고 알맞게 준비했어야 하는 책임을 느꼈다.

YMCA에서 수영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아이들과 같이 뒤엉켜 물놀이를 하며 서머스쿨을 마무리 하였다. 사실 YMCA 수영장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많이 준비하려 노력했지만 게임과 식사시간에 선의가 선행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다. 아직 현지를 이해하는 데 부족한 건지 단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인 건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이 날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는 만족감을 갖고 서머스쿨을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되었다.

이강호 단원

<akang18@naver.com>

Bagong Pook 초등학교, 페인트칠합시다!

개학에 대비한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환경미화

우리의 미션1. 학교 건물 청소하기.



방학 내내 더러웠던 학교 뒤뜰을 코코넛 나무로 만든 빗자루를 이용해 팔을 걸어 붙이고 열심히 청소 청소!! 이렇게 깨끗해 질 수가 있다니! 뿌듯 뿌듯!

미션3. 학교 문 앞 페인트칠



회색 빛의 칙칙한 학교 문 앞. 이 곳에도 새 하얗게 페인트칠을 했다. 흰색 페인트를 택한 이유는 6기가 진행했던 End poverty campaign의 의미를 지속시키고 싶었기 때문. "Can I try?" 라고 질문하는 예쁜 아이들의 물음에 거절할 수 없었던 우리는, 아이들 손에 페인트 붓을 가끔씩 쥐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완성된 벽. 이 곳에 페인트칠을 한 이유는 단순히 환경미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곳에서 우리의 또 다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비밀 ☺)

미션2. 교실 환경개선



교장선생님께서 쓰여지지 않는 낡은 교실을 제공해주셨다. 우리는 이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앞으로 이 곳이 두고 두고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피딩 프로그램과 수업의 교실

로 쓰여질 예정이며, 우리는 이 곳이 작은 도서관처럼 꾸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교실들처럼 환경과 시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땀이 들어간 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예쁘게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



아띠, 환경을 생각하다.



"에어컨? 먹는 건가요? 우리 그런 거 안 써요."
필리핀에 온 지 어언 석 달. 더운 필리핀 날씨에 어떻게 집에 에어컨이 없을 수 있을까 절망했던 아띠들. 이젠 에어컨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은 채 350PPM 준비의 일환으로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되기로 다짐했다.

종이의 한 면만 쓰는 필리핀에서 시연이는 이면지를 활용을!

평소 물을 콧물 틀어 놓고 양치하던 의주는 양치 컵을 사용을!

전자기기가 많은 화영이는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뺄 것을!

정원이는 마트 갈 때 매연을 팡팡 뿜는 트라이시클을 안 탈 것을!

강호는 활동하러 나갈 때 제일 늦게 나오면서 환경경찰 역할을!

태국에서 온 편지

350PPM을 준비하던 어느 날. 한 쪽에선 종이 봉투를 예쁘게 오리고 또 한 쪽에선 오린 종이 봉투에 '350' 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 종이 봉투가 100개, 200개 쌓일 때 우리가 신무역게임의 공장 노동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즈음 바로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 편지! 태국에서 아띠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아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한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제일 먼 스리랑카에서도 편지가 왔다. 다들 서로를 잊지 않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호랑이 기운이 저절로 솟아나요😊 근 한 달을 어디에서 떠돌다 이제 도착하셨는지 만신창이가 된 편지였지만 정성 들여 배곡히 쓴 손 편지들을 보면서 아띠들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걸 알 수 있었다.

Written by 의주

SPC YMCA와 친구들

커뮤니티 소개 - 발록, 산그레고리오, 산루카스

YMCA는 현재 발록, 산그레고리오, 산루카스 이렇게 3개의 커뮤니티와 ALS클래스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기부자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 세 커뮤니티에 5월 21일,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급하러 갔었다. 물론 우리가 가서 특별히 한 일은 없이 그냥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지만 말이다. 앞으로 이 세 커뮤니티에 ALS클래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이 커뮤니티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Baloc

발록 커뮤니티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YMCA는 지난 2011년부터 ALS클래스를 통해 이곳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다. 발록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ALS만이 아니라 나나이들과 함께하는 바나나칩 사업도 진행됐다.

San Gregorio

산그레고리오 커뮤니티는 기차길 옆에 위치해있다

.이 기차길을 커뮤니티 주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미들도 첫 방문에 기차길을 이용한 운송수단에 몸을 실었다. 기차길 옆 대지는 국유지로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다. 산그레고리오도 산파블로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기차길 옆에 최소한의 것들만 갖춘 집들을 짓고 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의 도우미로 생계를 유지한다. 물론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다. 산그레고리오의 높은 탈 학교 청소년 비율 때문에 YMCA는 이곳에 ALS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관계를 맺었다.

San Lukas II

산루카스II에서도 가와드칼링안 지역은 삼팔록 호수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집은 여러 기부자들이 후원해서 지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 가와드칼링안은 해비타트 연맹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산파블로 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리고 세계 각지에 이 단체가 있다. 그래서 산루카스가와드칼링안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정부 및 각종 국제 NGO 단체들의 후원이 이뤄지고 있다. 산파블로 내에서도 가와드칼링안을 위한 관심은 높다. 예를 들어 카노사 컬리지의 경우, 3000명의 학생들에게 2페소 정도 걸어서 매해 2채의 집을 가와드칼링안에 짓고 있다.

처음 산그레고리오 커뮤니티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위생 상태나 옷을 보고선 발록과 비슷하다고 느껴 깜짝 놀랐다. 쓰레기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발록 사람들만큼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가와드칼링안은 많은 기부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록, 산그레고리오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 보였다. 물론 커뮤니티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의 관찰에서도 각 커뮤니티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A12에 계속



기부에 대한 아띠들의 생각은?

강호 : 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해야 진정한 기부

시연 :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정원 : 수증자들이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화영 : 일방적인 Give 가 아닌 함께하는 Share 로서의 기부는 없을까?

의주 : 기부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

김시연 단원
<siyeon.kim.kr@gmail.com>

보고서 보시느라 몸이 뻐근하시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옆 사람과 함께 몸도 풀고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는 “협동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올바른 예>



<잘못된 예>

너에게 보내는 편지 Kaya natin yan!

바공포옥, C.M.A 아이들에게
서머스쿨이 벌써 끝난 걸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처음에는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아무 경험도 없어 걱정이 더 컸지만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과 특히 서로 형제라 느끼며 지내온 시간 덕분에 오히려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너희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 너희들에게 느끼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나중에 우릴 기억 못할까봐 조금 걱정된다. 사실 나는 처음에 한국과는 다른 수업환경과 가정환경에 자란 너희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어. 그래도 내 친 동생들이라 느끼며 단지 선생님이고 어른이 아닌 너희들의 친오빠, 친형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고 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믿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어떤 지식보다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주는 것처럼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할게. 서머스쿨은 끝났지만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웃으며 만나자.

팀원들에게

5남매로 이곳에 온지 벌써 3달이 지났고 이제는 서로 모든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졌다고 생각해. 큰오빠로써 제대로 못 챙겨주고 오히려 날 챙겨야 해서 항상 고맙고 미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서 그게 팀인 것 같아. 5월 한 달은 내 개인적으로 너무 후회가 많은 달이었어. 특히 우리 많은 활동들에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고 너희들에게 신경을 못 써서 더더욱 미안하다. 아시아의 진정한 친구로 이곳에 왔지만 너희들에게조차 나는 진짜 진정한 친구일까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사소한 거라고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해. 활동도, 회의도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혼자 아니라 5명에서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 활동 기간의 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남은 시간은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무엇보다 후회가 안 남는 시간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하자. 다들 너무 착해서 싫은 티도 못 내고 큰 갈등 없이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더 표현하고 서로 많이 의지하고 도와주자. 남은 시간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팀 목표인 자발적 행동으로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내 작은 소망이야.

나에게

너무 후회가 많은 이번 달. 나는 내 개인적인 일로 우리

활동을 제대로 못 한 것이 너무 화가 난다. 진정한 필리피노, 마음속의 불편함을 느끼고 깨우치자 라는 지난날들의 목표들 모두 진전이 못 됐다. 나는 이곳에 왜 왔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는지, 정말 진정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발적인 태도로 이곳을 관찰하고 실천하는지, 말만 번지르르 한건 아닌지 수많은 고민들을 한 날들이었지만 아직도 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생각이 많을수록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가장 사소한 것,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내 고민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남은 2개월 후회 없는 이곳 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 조금 더 진심으로 느끼자 그리고 깨우치자.



이강호 단원

前 골방 늙은이 담당

前 © 기저귀 담당

現 시리우스 블랙 담당

現 필리핀 팀 소녀감성 담당

불편한 진실

자, 지금부터 제가 샌드위치의 일생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감자샌드위치 공주님이 라온아띠 나라에 살았어요. 이 샌드위치는 라온아띠 서머스쿨 학생들의 마지막 날을 위해 태어났죠.

30개의 감자와 20개의 계란을 하루 종일 삶고, 껍질을 벗기고, 으깨고, 싱싱한 양파와 오이를 아이들 먹기 좋은 크기로 다지고, 마요네즈를 넣어서 섞고...

감자샌드위치 공주는 이렇게 이들이 꼬박 걸려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담백 받고 태어났어요. 뽀얀 피부와 폭신한 속살을 가진 샌드위치공주는 단연 라온아띠나라 못 남심을 울리는 최고의 인기녀였죠.

그리고 어느 5월의 화창한 날, 감자샌드위치 공주는 마침내 서머스쿨 학생들을 만납니다. 감자샌드위치 공주는 사실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50여명의 수많은 아이들의 간택을 받는 날이거든요.

감자샌드위치 공주는 예쁘게 바나나 잎 옷을 입고 수줍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공주님을 한입 먹고는 그대로 잔디밭에 내치고 맙니다. 왜냐면 감자와 함께 들어있었던 양파와 오이가 아이들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샌드위치는 버려진 채 라온아띠 멤버들과 함께 울상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감자샌드위치의 일생이었어요.

바공포옥 학생들의 40%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온아띠가 피딩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이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서머스쿨을 하는 동안 피딩 프로그램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준비한 샌드위치는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아 땅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위해 다져 넣은 오이와 양파였지만 아이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선의가 선행이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제 5월 활동은 바로 이 샌드위치 사건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선의를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선행으로 연결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저는 5월 내내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창의적인 수업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수업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내 그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집니다. 색종이를 나눠주면 그 색종이 때문에 싸우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놀아주다 보면 넘어져서 우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는 졸업 선물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나눠주러 집집마다 방문했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풍파만 일으키고 왔습니다. 우리를 맞이하겠다고 달려 나오다가 넘어지고, 우유를 카펫에 와장창 쏟고,

어머니들은 비 오는 날 찾아온 손님을 위해 간식을 사러 나가시고... 심지어 그 중 어떤 학생은 서머 스쿨이 더 좋다며 벌써 3일째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했던 행동들인데 왜 생각처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저는 어떻게 남은 6월, 7월 활동을 해야 할까요?

미스테리함이 가득한 혼란의 5월 끝자락에서 고민은 도무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김시연 단원

前 ◎ 기저귀 콜렉터 역임
前 필리핀팀 전속 간호조무사 역임
現 미스테리하게 머리가 빠리자람
現 필리핀팀 비련의 여주인공 담당



내 입술을 흥취간
그대는 지금 어디에...

달이 차오른다.

또 다시 6월이다. 한국은 지금쯤 여름이 막 시작하겠지만 필리핀은 무더운 건기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우기가 막 시작하고 있다. 내게 지난 5월은 반성의 달이었다. 서머 스쿨을 마무리 하면서, 350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나를 반성케 했고 또 나를 변화시키게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공 폭 수업. 그런 만큼 신경도 많이 썼던 수업이었고 또 그만큼 애정이 많았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말썽 꾸러기들과도 이제 헤어진다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 것 같은 뻘한 후회한 아스라이 남아돈다. 특히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 보다는 말을 안 듣고 천방지축 개구쟁이들이 더 애뜻했고 그랬던 만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팀원들끼리 언쟁을 벌였던 추억도 가득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생활에 깊숙이 반성하게 했던 사건! 지난 달 캠프의 4월 보고서를 읽고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 생활 속에서 350ppm를 준비하는 아띠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꽤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공정무역 운동을 한 이후부터 스스로에게 평소에도 실천하자고 다짐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그렇게 싫어하던 네슬레에서

만든 커피를 힘들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두 잔 이상씩 마시더니 속이 안 좋아서 골골거리지 않나, 환경 캠페인 한다는 사람이 전기를 팡팡 쓰고 있질 않나. 에어컨만 안 켜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았다. 내 스스로에게조차 이렇게 창피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시아적 감수성을 지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그래서 당장 팀원들에게 350ppm을 맞이해서 우리도 작은 환경수칙을 하나씩 정하자고 제안했고 고맙게도 선뜻 받아들여져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다. 그 동안 힘들다는 핑계로 아시아적 감수성이 아닌 이기심으로 명분만 가득 내세운 채 내 생활에 대해 너무 안일한 태도로 방임한 건 아닌지 진심으로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많이 바뀐 내 자신을 느끼고 있다. 다시 내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더욱 에너지가 넘쳐났다. 350PPM을 준비할 때도 제주도에 가서도 캠페인을 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신이 났다. 너무 재밌어서 이것저것 만들다가 팀원들을 지치게 했지만 이런 나를 보고 다들 좋아해주었다.

버리지 말아야 할 내 속의 작은 신념들도 내팽겨 쳐서 지쳐있던 지난날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니 왜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걸까.

참 신기하다, 라온아띠. 단 기간 내에 내게 많은 실험을 하게 해준다. 때론 좌절할 때도 있고 외롭기도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확고해진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또 서로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자극해주는 아띠들이 신기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 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습도 지수는 엄청 높지만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넘친다. 이제 6월, 우리의 활동이 점점 무르익어 열매를 맺듯 나 역시 물이 올랐다. 아 물 오른 의주, 6월도 짹짹 나가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의주 단원

前 컷 언리미티드 헤어샵 전속 모델
現 거성.ent 황진이 춤 홍보대사
現 비교적 상대음감 담당
現 화영병 환자 역할

기차길

매일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나올 때마다 지나던 기차길. 아이들은 언제나 수업이 끝나면 이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같이 온 언니 손을 잡고 작은 발로 힘겹게 걸으며 우리에게 밝은 표정으로 '바이 바이'를 외쳤고 나도 그 곳에서 안녕! 하고 그 아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당연히 쓰이지 않는 철도라고 생각했지만 이 곳은 열차가 지나다니는 진짜 철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곳이 집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여름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기차길을 지나지 않고 아이들도 매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들리는 열차 소리는 다시금 그 곳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화영 단원

現 살인 총동 미소 담당
現 소파 노숙자 역임
現 필리핀 팀 아저씨 감성 담당
現 화영병 숙주 역임

3개월 이라는 시간 동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던 한국도 이제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다가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절이 변화한 만큼 우리들의 모습도 변화하였습니다. 살갗은 점점 까맣게 변해가고 한국어보다 타갈로그어가 먼저 나오는 등. 걸모습과 말하는 것에 변화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부담스러워 하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며 놀며, 아이들이 제 볼을 꼬집고 잡아 당겨도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행복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점차 마음을 여는 것만큼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쿠야 폴"만 외치던 아이들의 외침 속에서 이제는 "쿠야 토니"가 함께 들립니다.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 아이들이 쫓르르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정을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미 크리스티와 저, 둘이서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모두 본 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주스 가게에 들렀습니다.

A16에 계속

주스를 마시던 저희에게 한 아이가 찾아와 주스를 구걸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아이들을 외면했을 저였지만 그 날 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과 같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 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먹으며 자라야 하는 걸까, 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희망적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들이 제 속에서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다 문득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한 달간의 활동이 저도 몰랐던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하나 둘씩 발견할 때 마다 이것이 훈련 때 배운 지구시민의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멀었겠지요. 남은 2개월 동안 더 열심히 활동하며 더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송정원 단원

現 마미크리스티 사위 예정자
 現 동방신기 in Canossa
 現 필리핀팀 수뚜레쑤 담당
 現 [누가 내 과자를 먹었을까] 저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Coming Soon . . . 6월호에 계속 . . .